
중국과학원과 MOU 체결 및 IAAE 참석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1. 출장개요

가. 출장목적

-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센터와의 MOU체결, 향후 발전방향 모색
- Global Club 참석, 특별주제 발제와 토론
- IAAE(세계농업경제학회) Mini Symposium 발표 및 좌장, 토론 등

나. 출장기간

출 장 자	출장기간
○ 오세익(원장), 강창용(기획조정실장), 최세균(선임연구위원)	2008. 8. 15~8.19
○ 어명근(선임연구위원), 이대섭(부연구위원)	2008. 8. 17~8.19

다.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센터
- 중국 베이징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학회 개최지)

라. 출장자

-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 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 출장내용

가. 출장일정

일시	일 정	비 고
8/15	○서울→북경 - 오세익(원장), 강창용(기획조정실장), 최세균(선임연구위원) - 오후 6시 농무관 등 현지 주재원 등과 간담회	○간담회; 오세익, 강창용, 최세균, 정정길(현지소장), 김진진(농무관)등
8/16	○Global Club Workshop 참석 - 오세익(원장) 발제 “ 한국농업 녹색성장전략”와 토론, 정보교류	
8/17	○서울→북경 - 어명근(선임연구위원), 이대섭(부연구위원)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센터 MOU체결 - 한국측; 오세익(원장)외 4인 - 중국측; 황지쿤(소장)외 10명 - 오후 6시 MOU참석자 대상 저녁만찬	○만찬; 오세익, 강창용, 정정길, 최세균, 어명근, 이대섭, 학회참석 한국교수(임정빈, 안병일, 이병오)와 중국 린시아 장 등 스텝 등
8/18	○제27차 세계농업경제학회, Mini Symposium 참석 - 주재; 오세익(원장) - 발표; 최세균, 이대섭 - 토론; 어명근	
8/19	○북경→서울 - 오전; 오세익, 강창용 - 오후; 어명근, 최세균, 이대섭	○세미나 발표일정에 의해 1,2차 분리입국

나. 주요출장 내용

< 제10차 Global Club Workshop(세계 농업경제연구 관련 기관장회의) >

- 일시; 2009. 8. 16, 오전 9시~
- 장소; 중국 베이징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BICC) 3층 회의장
- 참석국과 참석자
 - 한국;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세균
 - 호주; Phillip Glyde ABRE 소장; 글로벌 클럽 회장
 - 일본; Yasuo Watanabe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부소장
 - 캐나다; Tom Shenstone 농식품부 소장, Lars Brink

- 노르웨이; Ivar Petterson 농업경제연구소장
- 이탈리아; 농업경제연구소
- 네덜란드; Rudd Hurine 농업경제연구소장
- 중국; Fu Qin 농업경제발전연구소장, Yun Li
- OECD; Wilfrid Legg 무역 및 농업 담당

○ 안건: Agenda별 발표 및 토론, 차기 회의, 기타

<토의 주제별 발제 및 토론>

- Current State of Agriculture in China(발제자: Qin Fu)
- Developing policies for sustainable agriculture(발제자: Wilfrid Legg)
- Green Growth Strategy in Koeran Agricultural Sector(발제자: 오세익)
- Getting the economic message through to the policy makers(발제자: Tom Shenstone)

<차기 회의 개최>

- 개최장소: 3 가지 대안이 제시됨
 - 프랑스 파리: OECD 회의시, 2010년 9월경
 - 미국 콜로라도: 미국농업경제학회 100주년 기념대회시, 2010년 7월말
 - 이탈리아 베니스: GTTAP 모형 국제회의 개최시, 2010년 6월
-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프랑스 파리 개최가 적정할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 예정
- 차기 회의 안건: 기후변화와 농업(코펜하겐 협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를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
 - 연구원의 역할
 - OECD 각료회의 동향(결정 및 논의 사항 등)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및 환경 분야의 조정작업
 - 식량안보
 - FAO의 역할
- 기타: 글로벌 클럽 홈페이지는 회원국 해당기관이 관리 요망



<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센터 MOU >

- 일시; 2009. 8. 17, 오후 4시
- 장소;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오세익, 강창용, 정정길, 최세균, 어명근, 이대섭
 - 중국측; Jikun Huang(소장), Linxiu Zhang(부소장), Jinxia Wang(교수), Ruifa Hu(교수) 등 10여명



< 세계농업경제학회 >

○ 세계 농업경제학회 개요

- 세계 농업경제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농업경제학자들이 결성한 학술대회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를 포함하는 범세계적 학회임. IAAE는 3년 마다 개최되는 학회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하여 세계 농업의 발전에 관하여 토론하는 학회임. 특히 올해의 주제는 새로운 세계 농업의 가치창조와 방향제시가 주제로 선정되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 제 27회 세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개요

- 개최 목적
최근 경험하고 있는 세계농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장소 및 일시

- 중국 북경 컨벤션 센터, 2009년 8월 16일 - 22일

○ 학술대회 규모

포스터를 포함하여 제 27회 세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411여 편으로 세부 논문발표는 아래와 같음.

- Pre-Conference: 6개의 주제로 workshop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3개의 주제는 Learning workshop으로 이루어져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모형의 사용법, 설문조사 기법, 그리고 옵션거래에 대해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 전체 참여 분과(Plenary): 8개 세션에서 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기고논문(Contributed paper): 8개 세션에서 8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Mini-Symposia: 3개의 분과로 나누어 43개의 주제로 약 16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초청논문(Invited paper): 2개의 분과에서 16개의 주제로 약 4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중국분과: 4개의 주제로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포스터 발표: 80여 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음.

○ 세부 주제

- ① 신흥 경제대국들의 세계농업에서의 추진력
- ② 세계 농식품산업의 정치 경제적 시장경쟁
- ③ 세계의 공공제와 21세기 농업
- ④ 새로운 농업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농업경제학의 역할
- ⑤ 에너지와 기술진보

○ 주요 학술대회 내용

- 신흥경제대국에서는 농업인들의 도시 이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농업 또한 변화고 있음을 직시해야 함을 피력함.
- 더불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와 식량 가격의 급등은 세계농업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을 암시함.
- 별도의 세션으로 분리된 중국농업관련 분과에서는 중국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중국농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토론과 중국농업이 세계 농업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함.

-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의 각 분과를 지정하여 분과별 논문발표를 통하여 각 대륙별로 농업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세계 경제변화에 따른 농업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함.
- 학술적으로는 생산경제, 바이오연료, 농촌개발, 농산물 무역 및 통상, 유통, 식품안전, 식량안보 등의 주제로 논문발표가 이루어짐.

< 어명근박사 >

○ 토론; 원장 주관 심포지엄

- 8월 18일(화): 세계농업경제학회 미니 심포지엄 제1분과회의 참석(토론)
- 주제: 세계화와 동북아 농업 발전
- 8월 19일(수): 미니 심포지엄 제2분과 참관 및 귀국

○ 주요 발표와 토론결과

- 8월 17일 세계농업경제학회 미니 심포지엄 제1분과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제1분과 회의에서는 3명의 발표자와 3명의 토론자가 참석. 주제 발표자별 주요 내용과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r. Jikun Huang(중국과학원 중국농업정책연구중심)
 - 지난 30년간 중국 농업의 발전 과정과 성장 동력을 제도적 개혁(Institutional Reform), 농업기술(Agricultural Technology), 시장개방(Market Liberalization)이라 지적하고 향후 중국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였음. 특히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중국의 농산물 수입 관세율이 1992년 42%에서 2001년 WTO 가입 당시 21%, 그리고 2005년에는 11%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또한 중국의 농산물 무역 유형(patterns of trade)이 노동집약적 농산물인 과일과 육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토지집약적인 품목인 대두와 면화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중국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소규모 영농과 협동조합 미비, 그리고 농업의 현대화 낙후 등을 제시하였음.

— 임정빈(서울대)

-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업 현황과 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와 농업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향후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과제는 첫째, 도농간 소득 불균형, 둘째,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셋째, 직불제 개혁, 넷째,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다섯째, WTO/DDA와 FTA에서의 연착륙을 강조하였음. DDA와 FTA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관세철폐 및 인하의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Masayoshi Honma(동경대)

- 일본 농업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농정과 농업구조 변화를 설명한 후 일본 농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먼저 일본 농업은 WTO와 FTA 등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일본 농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미국이나 EU 등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농정 개혁 방향은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농업 노동력 이동을 위한 국제 이민 자유화, 동식물 검역 (SPS)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개도국 기술지원, 농업구조 조정 촉진 및 그에 따른 직불제 개편 등을 제시하였음.

— 지정 토론: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중일 3국의 농업은 공통적인 문제점과 함께 국별로 고유한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 공통적 문제점인 소규모 영농이라는 특성은 이들 3국의 농업 경쟁력을 낮추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으로서 동북아 3국이 토지집약적 농산물인 곡물과 대두를 수입하게 된 요인임. 중국도 지금까지는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노동비용 상승과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언제까지 노동집약적 품목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한국과 일본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동북아 3국의 농업은 공동의 생존을 위해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보다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농업기술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최근의 쟁점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함. 이러한 차원의 협력은 역내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시금석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같은 형태의 지역 식량수급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최세균박사 >

○ 발표 및 토론

- mini symposia 참석(2009. 8. 19.)

<발표>

- 동북아 농산물 무역 일본의 관점(Lily Kiminami, 니이가타대)
- 동북아 농산물 무역 한국의 관점(안병일, 경상대)
- 동아시아 FTA와 농업: 영향 및 과제(최세균 농경연)

<토론>

- 이병오(강원대)
- Keijiro Otsuka(일본 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
- Ni Hongxing(중국 농업부 농산물 무역촉진 센터)

○ 발제 요지

- 일본: 일본의 농산물 무역 동북아 역내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공식품 및 농업/관련산업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음. 식품클러스터, 직접투자 등에 있어서 일본이 유리한 입장이며 이는 신선 농산물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역내 국가들의 교역원활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개선 필요
- 한국(안병일):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수입은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음.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일본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임.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상호 경쟁적이지 못함.
- 한국(최세균): 동아시아 13개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는 감소 추세임. 한국의 대일 의존도 감소, 대중국 수입 의존도 감소, 일본의 역내 의존도 감소 등이 중요한 원인임. 다양한 경쟁력 지수로 평가한 결과 중국은 거의 모든 농산물에서, 아세안은 쌀, 닭고기, 열대과일 등에서 경쟁력이 높으며,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농산물에서 경쟁력이 낮음. 13개국 FTA로 인한 영향은 쌀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FTA를 위해서는 교역원활화, 식품안전, 보상원칙 등의 분야에 진전 필요

○ 토론 요지

- 역내 교역원활화, 농업 및 식품 산업의 보완적 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성에 공감. 분석에 있어서는 품질 차이, 가격외 요인 예를 들면, 검역(구제역 등) 조치에 의한 한국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 중단, 쌀의 품질 차이 및 소비자 선호도의 차이 등 구체적인 세부적인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시장개방 영향 평가에 있어서 쌀의 경우 GTAP, GSIM 모형에 의해 제시된 결과보다 더 큰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일본의 소비자들의 국산 선호도가 높을 경우 영향이 더 작게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부분들이 계량 모형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 보완 필요.

○ 기타

- 동북아 농산물 교역 원활화 및 농업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창구 또는 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 대화가 진전될 경우 국가별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탄생 가능.

< 이대섭박사 >

○ 발표

- 8월 19일 11:00 - 12:20 “Market outlook and policy analysis: Differing uses of the "FAPRI Process" in Korea, Europe, South Africa and the United States"의 Mini Symposium내 KASMO관련 내용 발표
- 발표 제목: 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KASMO)
- 미국, 한국, 유럽, 남아공의 모형관련 논문 게재 일정협의(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 주요 발표내용

- 연구원에서 개발한 KREI-ASMO(KREI-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의 이론적 배경, 모형의 구조, 모형의 실증분석, 전망결과의 이해,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 27회 세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Market outlook and policy analysis: Differing uses of the "FAPRI Process" in Korea, Europe, South Africa and the United States"의 주제로 한국측 대표로 발표함.
- 미국 측에서는 Seth Meyer 박사가 “Stochastic Analysis for FAPRI Model”이란 주제로 하나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법에서 현재 약 500개의 확률적인 솔루션을 발견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이점과 방법에 대해 발표함.
- 남아공에서는 Thomas Funke 박사가 남아공이 FAPRI와 공동으로 연구한 남아공 재정분석 모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발표함.
- 유럽 측에서는 Trevor Donnellan 박사가 유럽 27개국의 농업부문 모형을 통합하여 EU의 농업 생산에 대한 전망 방법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발표함.